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랑의 성공〉이다. 다른 것보다 ‘사랑’에 성공해야 된다.
2. 세상에 많은 자들이 다 개성대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주 사랑〉에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그때마다 원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만족한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에 성공한다.
4. 〈주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은 ‘신적 사랑’이다. 이 〈주체 사랑〉에 중심을 놓고 그때마다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주체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며 사랑해 주신다.
5.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상대적 사랑’에 맞춰서 해 주시면서 ‘주체의 사랑’을 이끌어 가신다.
6. 가령 “오늘 놀러가자.” 했으면 그 마음에 맞춰서 같이 놀러가고, “오늘 일하자.”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일해야 된다. 이같이 서로 맞추지 않으면 ‘사랑의 만족’이 없으니, 만족한 사랑을 위해서 후자를 택하게 된다.
7. 〈사랑의 만족〉이 없으면, 다시 ‘사랑의 대상’을 택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역사를 해 왔다.” 하셨다.

8. <이성 관계>를 한다고 해서 ‘사랑’ 이 아니다. 서로 위해주고, 섬겨주고, 마음도 맞춰 주고, 같이 이야기도 하는 것도 ‘사랑’ 이다. <사랑>은 수십, 수백 가지가 있다.
9. <하나님 사랑>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때마다 맞춰서 해야 된다. 선생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붙어서 사랑하고, 40년 동안 시중을 들었다. 삼위가 “배워라.” 하실 때는 전적으로 배우고, “전하라.” 하실 때는 전적으로 전하면서 그때마다 해야 될 것을 해 나갔다.
10. <신>이 돼야 ‘신의 사랑의 대상’ 이 된다.
11. 선생이 삼위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어느 때는 죽음 속에서도 행하는 사랑을 할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초를 다투는 사랑을 할 때도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신의 사랑인데, 죽음이 무엇이 두렵겠느냐. 나 여호와가 있노라.” 하셨다. 이같은 사랑에 불붙어 해야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대상, 지구상에 사랑의 실존 대상’ 으로서 쓰신다.
12. <메시아> 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지구상에 ‘하나’ 밖에 안 뽑는다. <신약 때>는 구약 4000년이 지나고서 예수님, 한 명 딱 뽑으셨다. <사랑>에 합격하기가 그리도 힘들다. <사랑>에 합격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을 받으며 갖추어 갖출 것을 갖추나가야 된다.

13. <메시아>는 보통 사람이 알듯 알아서는 안 된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아는 만큼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즉시 통역해서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항상 시중을 들 수 있다.
14. <사랑>에 성공하기가 그리도 어렵다. 특히 하나님 앞에 ‘사랑의 시중’ 들기가 그리도 어렵다. 세상 사랑, 이성 사랑에 떠나서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을 섬기고 모시며 사랑해야 된다.
15. 하늘의 천사는 ‘삼위의 사랑의 대상’ 이 안 된다. 고로 하나님은 천사로 만족하지 못한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구원역사를 시작하시고 <구약의 종급>에 만족하지 못한 사랑으로 신약 때 예수님을 보내시어 ‘자녀급 사랑’ 을 하셨다. 그리고 <신약의 자녀급>에 만족하지 못한 사랑으로 성약 때 사랑하는 자를 보내시어 휴거로 사랑의 뜻을 이루셨다.
16. <사랑>에 만족하지 않으면, ‘더 잘하는 자’ 를 통해 ‘사랑’ 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17. <사랑>하되, ‘주체가 원하는 사랑’ 을 해야 ‘만족한 사랑’ 을 하게 된다. 가령 <가정>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사랑’ 을 받지 못하면 사랑의 만족이 없다. 마치 음식을 먹었어도 몇 숟갈 먹고 오는 것과 같다. <사랑>에 만족하려면, 음식을 먹으러 가서 실컷 배부르게 먹고 오듯 해야 된다.

18. <사랑의 왕>이 되려면,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운동 선수들>도 그 분야의 왕이 되기 위해 자기 분야에 미쳐서 매일 연습하고, 노력한다. <사랑>도 그러하다. 매사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며 뛰고 달리고, 그 말씀대로 목숨 걸고 행해야 된다.
19. <주체가 원하는 사랑>을 해야 ‘삼위와 주의 사랑’을 받게 된다.
20. <휴거되어 황금성 천국에 간 자>는 ‘사랑에 성공한 자’ 다.
21. <휴거된 자>는 ‘사랑의 복을 받은 자’ 다. <사랑의 목>을 받았으면,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22. <모든 존재 세계>는 ‘관리 세계’ 다.
23. <사랑>도 ‘관리’ 할 줄 알아야 된다. <관리>하지 않으면,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24. <사랑>은 그 ‘힘’ 이 제일 크다.
25. <하나님>도 ‘사랑의 힘’ 이 제일 크다.
26.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힘 있게 역사하신다. 고로 <하나님과 사랑 일체>되어 행하면 ‘능력’

이 일어나고, ‘표적’ 이 일어난다.

◎ 말씀 마쳤습니다.